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사회교감' 승가교육 화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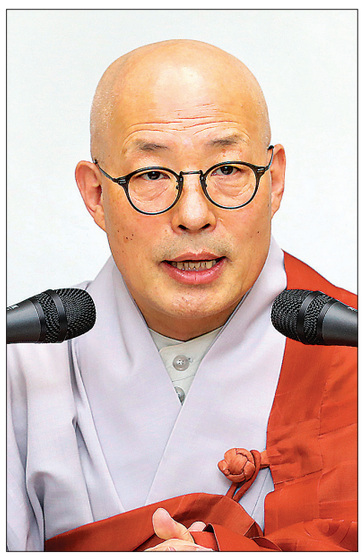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사회와 교감하는 승가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개론서 발간을 추진한다. 종단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승가교육 정책 기조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승가교육 정책의 키워드로 '효율성'과 '사회교감'을 제시했다. 출가자 감소와 코로나19라는 교육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일상의 언어로 사회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승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효율적 승가교육을 위한 첫 과제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조정을 꼽았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기본교육기관 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다만 교육기관별 간담회를 진행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는 추가 의견을 보완하고 종단 주요 기관과 심도있게 논의해 가시적 조정안에 다가서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안에 대해 진우 스님은 "통합과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략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기본교육기관 조정은 현재 종단 출가자 감소 문제와 맞물려 있다. 출가자 감소에 따른 효율적 승가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승가교육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기본교육기관 조정, 지속추진
사회와 교감할 인재양성 위해
일상 언어 불교개론서 발간도
온라인 연수 · 출가 홍보 강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교육 분야 중 하나는 스님들의 연수교육이었다. 올해 조계종 교육원은 온라인 연수교육을 전체 교육의 90%까지 전면 확대해 '비대면 연수'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법계과정 온라인 연수교육 운영 △연수 교육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접수 · 연수 시스템 운영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등의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진우 스님은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변화되는 종도들의 교육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가 장려 캠페인도 온라인 분야가 대폭 강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하반기 출가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채팅 상담과 모바일 기능을 도입했다. 행자들에 대한 집체교육이 어려운 만큼 습의, 염불 등을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시행 중에 있다.

사회와 교감하는 승가 인재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를 현대적으로 명철하게 재해석한 불교개론서" 발간도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교육원 내에 편찬위원회가 2월 중 구성되며, 부처님 생애 · 초기불교 · 대승불교 · 한국불교사 등 개론서 목록화 작업과 집필자 선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는 기초적인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한 불교개론서를 발간해 승가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일반 대중도 해당 개론서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일상의 언어를 불교에 적용해 새로운 불자상, 승가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불교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행혁신 지속 터전 마련"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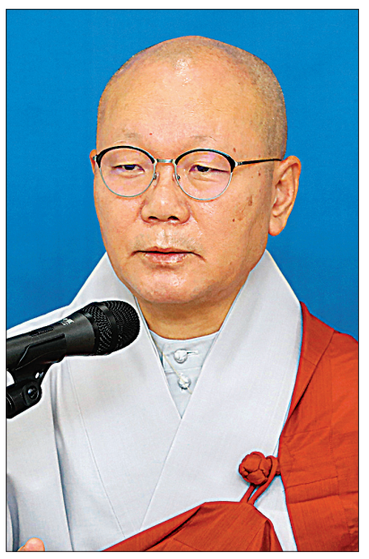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제7대 포교원에서 진행해 온 신행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코로나 이후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행 지원, 활동이 어려운 청년불교 활성화 등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포교 종책 기조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은 기복문화에서 수행문화로의 전환이란 기치를 걸었던 '신행혁신' 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홍 스님은 "7대 포교원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성과를 회향하겠다"며 △불교성전의 편찬 발간 △〈불교 5대수행법 길라잡이〉를 심화한 〈불교수행법 지침서〉 발간 △〈불자생활의례〉의 사찰활용을 위한 〈불자의례집〉 발간 등 신행혁신운동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홍 스님은 "종단본 〈불교성전〉은 생활 속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각종 법회나 행사시 설법 문안 등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대 포교원에서 진행한 전국포교지도 완성과 SNS신행혁신, 온라인포교 강화 등을 강조한 스님은 "27대 중앙신도회와 향후 출범할 제8대 포교원이 더불어 종단 신도조직의 새 도약을 이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행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19 등 내외 악재에도
신행 혁신 소기의 성과 평가
생활의례 · 수행지침 등 보급
차기집행부에 지속성도 당부

포교원이 종단을 대표해 진행하고 있는 〈종단본 불교성전〉의 발간은 2월 말로 잠정 연기됐지만 막판 수정 등으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40년 만에 종단본이 나오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북, E북 등 불교성전 활용사업은 불교성전 기금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청년 포교 분야에서 대불련 불교학생회에 지도법사 스님 8명을 위촉하고 청년대학생신행축제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UCC공모전 등을 통해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역량 표출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포교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수행애플리케이션 보급에도 힘썼다. 또 유튜브 불교콘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는 '고사리 채널' 운영도 선구적으로 선보였다. 이에 고무된 포교원은 대학동아리 지원을 비롯한 대학불교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홍 스님은 제7대 포교원 집행부 임기 말인 점을 감안해 임기동안의 소회와 제8대 포교원에 대한 바람도 함께 전했다.

스님은 신행혁신 운동이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전국적인 확산이 더뎠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우리 종단이 포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기본이 되는 교리와 수행, 의례를 잘 갖추고 사부대중이 알기 쉽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종단적으로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지역별 포교전략 수립, 교구본사와 사찰의 역량 증대, 지역 포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통한 조직화"라며 "일관된 포교방향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신행혁신 운동, 불교성전 발간과 더불어 맞춤형 개발, 수행과 의례의 세밀한 제공 등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前 종정 혜초대종사 법문집 발간

혜초화상문도회, 1월26일 공개

혜초화상문도회(회장 재홍)는 제17 · 18 · 19세 태고종 종정 및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을 역임한 혜초당 덕영 대종사 법문집 〈한국불교태고종 제17 · 18 · 19세 종정 혜초대종사- 삶의 길 구도의 길〉을 발간했다.

혜초화상문도회는 1월 26일 문도회장 재홍 스님, 부회장 능해 스님, 사무총장 지웅 스님, 총무 성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혜초화상문도회장 재홍 스님(태고종 고시위원장)은 "법문집은 스님께서 선암사에 주석하시며 학인들을 제접하시고, 신도들을 위해 설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혜초대종사께서는 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종단과 불자들의 안온은 물론, 국민들의 이고득락한 삶과 행복을 위해 온몸으로 정진하신 대선사였다"고 추모했다.

책은 △인생 그리고 해탈 △효도우란분 △수계와 교육 △수행정진 △사찰 및 종단불사 △미수 특별법문 △봉축 신년 안거법문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2023년 한국서 '세계불교여성대회' 개최

한국지부, 2월 총회에서
주제 · 방식 등 논의키로

전세계 비구니 승가와 여성 불자들이 참여하는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가 2023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한국지부(공동대표 본각 · 조은수)에 따르면 최근 '샤캬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인터내셔널'은 2023년 예정된 '제18차 세계불교여성대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결정했다.

세계불교여성대회의 한국 개최는 지난 2004년 '제8차 세계불교여성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전세계 비구니스님 등 수행자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가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불교적 가르침과 학문적 견지를 모아 대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인만큼, 계획대로 개최될 경우 한국 여성불교 발전에 큰 성과를 일굴 것으로 기대된다.

샤카디타 한국지부 사무국은 2월중 총회를 열어 구체적 일정과 명상, 논문 주제, 문화 교류 등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3월4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중앙선관위, 1월 22일 확정
통도사 · 고운사 · 관음사 3석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76차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3월 4일 오후1시에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선출하는 중앙종회의원은 통도사 · 고운사 · 관음사 직선직으로, 각 1석, 총 3석이다. 제15교구 통도사는 지난해 9월 입적한 각성 스님의 후임, 제16교구 고운사는 고운사 주지소임을 맡은 등운 스님의 후임, 제23교구 관음사는 함결 스님의 후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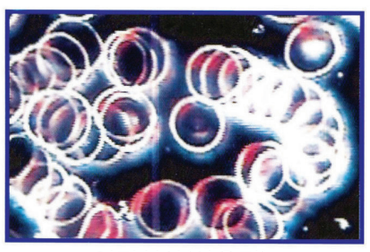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다.

승랍 15년 이상, 세랍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스님이 대상이며,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원일 경우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2월7일까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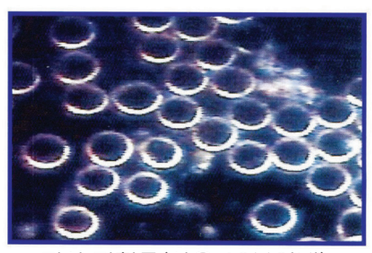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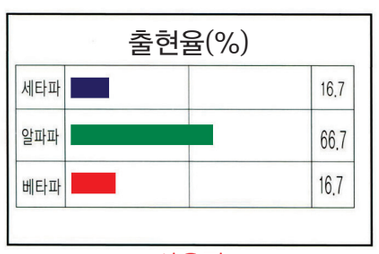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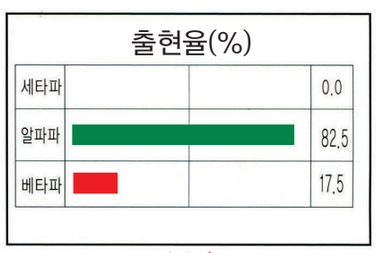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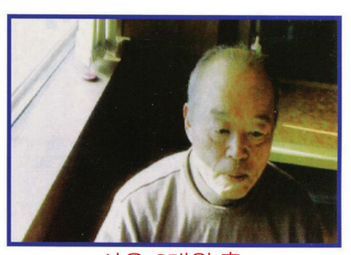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신년감사 특별세일 1월 18일 ~ 2월 10일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